

지프, 80주년 기념 에디션 공식 출시

지프가 브랜드 80주년을 맞아 지프 80주년 기념 에디션을 공식 출시했다. 레니게이트, 체로키, 랭글러, 그랜드 체로키 등 지프 80주년 기념 에디션 모델은 80주년 기념 배지, 태그 가죽 시트, 태그 플로어 매트 등 브랜드 헤리티지를 강조한 디자인 요소를 곳곳에 적용해 특별함을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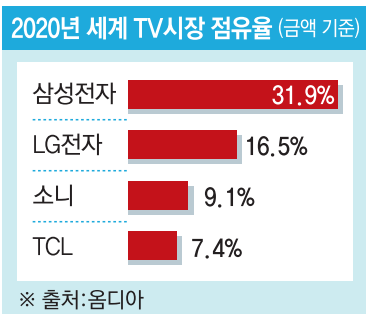
비즈 프리즘 | 세계 1·2위 삼성 vs LG, TV 신제품 전쟁 막 오른다

네오QLED vs OLED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네오 QLED’ 모델 21개 출시
미니 LED 적용 다양한 라인업 매력
LG도 ‘올레드 에보’ 등 신제품 공개
차세대 패널 적용한 G시리즈 눈길



지난해 세계 TV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신제품을 내놓으며 경쟁에 나섰다. 지난해 성장을 이끈 QLED(삼성전자), OLED(올레드·LG전자)를 전면에 세웠다.

삼성전자는 3일 올해 TV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QLED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미니 LED(발광다이오드) 기반의 ‘네오 QLED’로 16년 연속 세계 1위를 수성한다는 전략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TV 시장에서 금액 기준으로 역대 최고인 31.9%의 점유율을 달성했다. 무려 15년 연속 1위다. QLED와 초대형TV에 집중한 것이 주요했다는 게 삼성 측 설명이다. 실제 삼성전자의 QLED TV



세계 TV 시장 점유율 1·2위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신제품을 출시하며 2021년 경쟁을 시작했다. 양사가 주력 제품으로 내세운 ‘네오 QLED’(삼성전자·왼쪽)와 ‘올레드’(LG전자).

판매량은 2017년 80만 대에서 2019년 532만 대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에는 779만 대를 팔았다.

삼성전자는 올해 네오 QLED TV를 총 21개 모델로 출시한다. 화질별(4·8K), 사이즈별로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네오 QLED는 40분의 1로 작아진(높이 기준) ‘퀀텀 미니 LED’를 광원으로 사용해 화질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 강화된 게임과 스마트 기능, 인공지능(AI) 기반 사운드도 갖췄다.

네오 QLED 신제품은 한국 시장에 3일 출시됐다. 8K는 85인치가 1380만~1930만 원, 75인치가 889만~1380만 원, 65인치가 589만 원이다. 4K는 50~85인치가 229만~959만 원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99인치와 88인치 ‘마이크로 LED’ 제품도 새롭게 선보였다. 99인치는 상반기 중, 88인치는 연내 도

입한다. 한종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은 “지난해 소비자들의 사랑 덕분에 글로벌 시장에서 15년 연속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혁신 기술과 소비자 중심 제품으로 TV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고 친환경·접근성을 지속 강화해 ‘스크린 포 올’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LG, OLED로 추격 고배

LG전자는 올레드(유기발광다이오드) TV로 추격의 고배를 진다. LG전자는 지난해 세계 TV 시장에서 16.5% 점유율(금액 기준)로 2위를 차지했다. 2019년 16.3%보다 소폭 성장한 수치로 연간 출하량이 처음 200만 대를 넘어선 올레드 TV가 성장을 이끌었다.

LG전자는 올레드 ‘올레드 에보’를 포함해 다양한 신제품을 한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순차 출시한다. 2021년형 올레드 TV는 G시리즈(올레드 에보)와 C시리즈, B·A시리즈, R·Z시리즈 등 6개 라인업 18개 모델이다. 특히 ‘올레드 갤러리 TV’로도 불리는 G시리즈는 차세대 올레드 패널을 적용해 보다 밝은 화질을 낸다. 해당 제품은 이달 모델별 순차 출시한다. 올레드 TV는 65인치 제품 기준으로 G시리즈가 460만 원, C시리즈가 410만 원, B시리즈가 380만 원이다. LG전자는 미니LED를 적용한 QNED 미니LED TV도 선보일 예정이다. 박형세 LG전자 HE사업본부장은 “올레드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올레드 팬덤을 조성하며 올레드 대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볼보자동차가 3일 공개한 CMA 플랫폼 기반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 전용 모델 ‘C40 리차지’. 볼보자동차는 2030년까지 완전 전기차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 볼보자동차

“2030년까지 전기차 기업 전환할 것” 볼보, 순수 전기차 ‘C40 리차지’ 공개 40분만에 80% 충전…온라인 구매도 가능

볼보자동차가 2030년까지 완전한 전기차 기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비율을 각각 50%, 2030년에는 100%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헨릭 그린 볼보자동차 최고기술책임자는 “내연기관을 장착한 자동차의 미래는 없다”며, “볼보자동차는 전기 자동차 제조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전환은 2030년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볼보자동차는 3일 CMA 플랫폼 기반으로 설계된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 전용 모델인 ‘C40 리차지’를 공개했다. 최첨단 픽셀 기술이 적용된 헤드라이트가 포함된 전기 볼보자동차만의 새로운 전면부 디자인을 채택했다. 후면은 하부 루프라인과 이어지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차별화했다.

쿠팡형 SUV인 C40 리차지의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거리는 약 420km이며, 40분 만에 약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78kWh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 주행 가능 거리는 향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될 예정이다.

C40 리차지는 볼보자동차의 새로운 전기차 판매 전략에 따라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 워런티(품질보증), 충전 옵션 등 특별한 패키지가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C40 리차지의 양산은 올 가을부터 시작되며 XC40 리차지와 함께 벨기에 겐트 공장에서 생산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공정위, 신세계 이마트의 SK와이빈스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3일 신세계 이마트의 SK와이빈스 프로야구단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프로야구단이 신세계 이마트와 계열사들의 사업과 수평적으로 중첩되거나 수직적으로 관련이 없어 주식 취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 프로야구단 지분 14.5%를 보유하고 있지만 경쟁 저해 우려가 없다고 봤다.

현대중공업, 사우디 아람코와 ‘수소프로젝트’

현대중공업그룹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와 협력해 다양한 ‘수소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는 3일 사우디 아람코와 수소 및 암모니아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날 협약을 통해 친환경 수소, 암모니아 등을 활용해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고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사우디 아람코로부터 LPG를 수입해 수소생산설비를 통해 블루수소를 생산하며 탈황설비에 활용하거나 차량, 발전용 연료로 판매할 계획이다. 현대오일뱅크는 2040년까지 300개 수소 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생산한 수소 판매를 위한 공급망을 갖출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를 활용한 사업도 추진한다.

편집 | 신한지주 기자 mythuki@donga.com

쿠팡이츠, 배달비 개편…라이더들과 충돌

배달비 차등지급…최저 기본비 줄여
쿠팡 “원거리 배달 기피완화 위한 것”
라이더들 집단휴업…쿠팡에 항의의 지속

배달 서비스 3위 업체 쿠팡이츠가 배달비(수수료) 체계를 바꾸면서 라이더(배달 대행기사)들과 각을 세우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일 쿠팡이츠는 배달비 체계를 개편했다. 라이더들에게 주는 기본 배달비를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거리에 따른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 쿠팡 측 설명이다. 하지만 라이더들은 “최저임금도 받기 힘들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이 내놓은 새 배달비 체계는 기본 배달비 범위를 2500원부터 1만6000원으로 넓힌 것이 골자다. 문제는 최저 기본 배달비가 줄어든 것이다. 기존 기본 배달비는 3100원이었다. 일부 라이더들은 “배달비를 삭감했다”며 2일 집단휴업으로 맞섰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휴무 인증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다. 라이더들의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측은 “쿠팡이츠의 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항의를 계속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기존 거리별 할증 배달비도 오히려 줄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편 전에는 100m당 100원의 할증 배달비를 지급했는데, 2일 이후엔 70원까지 줄었다는 얘기다. 한 라이더는 이에 대해 “실제 체감 상



쿠팡이츠의 배달비 체계 개편에 라이더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달 3일 쿠팡 본사에서 항의하고 있는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

할증 수수료가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새 배달비 정책이 기존 배달파트너의 원거리 배달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 배달 거리에 따른 실질적 공정한 보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할증 수수료가 줄었다는 것에 대해선 거리별 할증 체계를 개편해 고정된 할증이 아닌 상황에 따라 할증 금액을 최대 1만 원

까지 추가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배달수요나 거리, 난이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실시간으로 적용한다는 얘기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경쟁사들도 기본 배달비를 낮추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업계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신한지주, 배당성향 22.7%…“금융위 권고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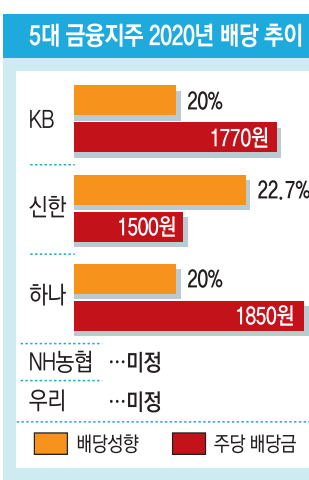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로 자신감 ↑
우리금융·NH농협도 배당성향 관심

신한지주가 2020년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주주배당금 비율)을 22.7%로 결정했다. 배당금은 주당 1500원, 배당수익률은 4.5%(기준주가 3만3200원), 배당총액은 7738억 원이다. 2019년 배당성향인 25.97%보다는 낮지만 앞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은행권에 권고한 배당성향인



조용범 신한지주 회장

20%를 2.7%p 웃도는 수준이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은행권이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6월까지 배당성향을 20%로 제한할 것을 권고해 왔다. 단 장기 경제 불황을 가정해 진행한 재무건전성 평가(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기관에는 배당



1770원과 1850원으로 결정할 바 있다. 반면 신한지주가 금융위 권고보다 높은 배당

성향을 자율에 맡기로 했다. 이에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는 배당성향을 20%로 맞추면서 배당금을 각각 주당

성향을 설정한 것은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통과하는 등 재무건전성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 통과라는 명분을 얻은 만큼 전년보다 낮아진 배당성향에 성이 난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설명이다.

이제 관심은 아직 배당성향을 결정하지 않은 우리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에 쏠리고 있다. 특히 NH농협금융의 배당금은 전액 농협중앙회로 지급돼 전국의 농민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만큼 금융위의 권고를 따를지, 농민 조합원을 위한 선택을 할지 이번 배당성향 결과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